국내 대학 의류패션계열학과 의복원형설계 교육실태 조사

오송윤 · 최혜선[†]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Research on Education Conditions of Basic Clothing Patterns
in Korean Colleges & UniversitiesSong-Yun Oh · Hei-Sun Choi[†]Dept. of Clothi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접수일(2011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2012년 1월 30일)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guidelines to enrich lecture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for university lecturers about basic clothing construction (flat pattern making).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3th to December 20th 2010 by mail and e-mail on 96 selected clothing departments in Korean universities to investigate the content, method and condition of the course of basic pattern making. A total of 63.3% of survey respondents were PhD graduates, 80 percent majored 'Apparel Science and Technology', average of total teaching experience was 12.84 years and 40 percent had studied abroad. The surveyed universities were 4 year universities (70%), 2-3 year tenure colleges (27%), and Cyber Universities (3%).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 was 28.08 and the lab space and equipment was evaluated positively only when the number of students was 20 or less. The type of measurements for basic pattern drafting were 'individual student's sizes' (62%),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25%), 'professor's experiential sizes' (5%), 'dress form sizes' (3%).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using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increased 13% over the previous study (Lee, 2000). At a basic pattern drafting stage, 'the error of body measurements' in the case of using individual student's sizes, 'the poor results of fitting for students who deviate from standard body size' in the case of using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the lack of education about fitting' in the case of using dress form sizes had been pointed out as shortcomings. A total of 66% of survey respondents carried out muslin fitting; however, a lack of students and teacher feedback about fitting & alteration of paper patterns remained a problem.

Key words: Clothing construction, Basic pattern, Conditions of education; 의복구성, 원형패턴, 교육실태

I. 서 론

2차원적이고 추상적인 디자인 아이디어(design idea)는 의복구성(clothing construction)이라는 과정을 통하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choi@ewha.ac.kr

본 설문에 참여해주신 100분의 교·강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 3차원적이고 구체적인 '의복'으로 거듭난다. 의복은 인체에 입혀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바, 의복을 구성하는 과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하나의 의복을 완성시키는 데는 물리적인 재료인 '옷감', 의복의 세부적인 모양새를 결정짓는 '디자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 재료와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어 실질적인 옷으로 완성시키는 '구성과 제작'이 모두 필요하며, 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좋은 옷’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옷을 만들 어내기 위한 각 분야의 발전과 통합은 의복을 생산하 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의류업체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의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분야를 막론 하고 의류학 각 영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교 육내용과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 스를 제공한다면 장차 의류패션산업을 책임질 고급 인 력을 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삼박자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역량 있는 일꾼을 길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의복을 실제적인 옷으로 만들어내는 분야를 우리는 ‘의복구성영역’이라 부른다. 이 분야에서는 선정된 소재와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 패턴을 제작하고 마름질한 후 에 적합한 봉제법으로 바느질하여 옷을 만든다. 하지 만 의복구성영역은 단순히 패턴을 제작하고 옷을 만드 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능적, 심미적 의복의 생산, 설계에 요구되는 인체측정 및 database 구축, 의복치수 체계 설정, 의복의 제작 및 평가, 의류생산기술 및 관 리에 이르는(“Research division”, 2011)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류학의 한 영역이다.

의복구성영역의 입문과목은 보통 ‘의복과 인체의 구 조적 관계 이해’와 ‘의복원형 패턴설계 및 원형의(衣) 착장’으로 그 학습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의복 구성영역 교과내용의 첫 단계로서 후행되는 관련 과목 들의 이해도와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교육용 의복원형 및 의복원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의류패션계열학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복원형설계(평면) 교 육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차 의류패션산업을 이끌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당과목 교육 을 담당하는 교·강사에게 강의내용 및 강의방식구성 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자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의류’, ‘의상’, ‘패션’ 및 ‘섬유’ 카테고리의 총 195개 학과명 리스트(조사기 준일 2009년 4월 1일)(“List of clothing”, 2010)를 토대 로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과(교육)과정 자료를 개

별적으로 수집한 후, 학과 홈페이지 검색과정에서 동일 한 학과명으로 중복 표기된 학과, 동일 학과로 추정되 나 상·하위 카테고리가 분리되어 표기된 학과, 인터넷 으로 검색되지 않는 학과, 학과의 교과과정이 의복구성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 학과 등을 제외하여 총 99개 대 학(본·분교 별도 구분) 107개 학과(전공)를 선정하였다. 학과 자료 검색기간은 2010년 5월 7일에서 5월 26일로, 그 기간 중 학과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거나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과과정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학과 사 무실에 직접 전화문의 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다. 선정된 107개 의류패션계열학과(전공)에 대하여 2010년 9월 25일~10월 10일에 걸쳐 학과 홈페이지 검색 및 학과 사 무실 전화조사를 통하여 ‘의복구성영역 담당 교수명’ 을 조사하고, 담당교수가 없는 경우 ‘평면구성방식의 의복원형구성을 포함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수자명’을 조사하여, 설문지 수신인이 불명확한 11개 학과를 목 록에서 제한 후 최종 96개 학과의 ‘의복구성 담당교수’ 또는 ‘해당과목 담당강사’를 본 연구의 설문조사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2010년 7-8월에 작성한 예비설문지를 10인의 교·강사 를 대상으로 한 예비설문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10월 13-25일 본 조사용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조사는 각 학과 담당 교·강사 앞으로 각 2부의 설문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 중 이메일 주소 확인이 가능한 전원을 대상으로 11월 15일 동일한 설 문내용의 온라인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2010년 12월 20일까지 총 100부의 설문지(오프라인, 온라인 포 함)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 므로 회수된 100분의 설문지 모두를 본 연구의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분석결과 중 무응답 결측치 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앞서 밝힌다.

3. 조사내용

본 조사는 국내 대학 의류패션계열학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평면구성방식 의복원형 교육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강의 여건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Lee, 2000)의 설문지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내용을 재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내용은 해당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9문항, 원형설계 방식에 관한 사항 22문항, 원형衣 제작 및 가봉에 관한 사항 19문항, 교·강사에 대한 사항 3문항 등으로 구성하였고, 본인이 가장 최근 강의한 ‘평면구성방식의 의복원형설계를 포함하는 교과목’을 하나 선택하고 그 과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았다. 만족도, 문제정도, 맞춤새, 적합성 등에 관련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객관식 문항에서 주어진 보기 이외의 답변은 서술형으로 응답하게 한 후 공통되는 답변을 객관식화 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교과목에 대한 사항

1) 조사대상자의 최종 학력과 세부전공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응답자 98명 중 ‘박사졸업’이 62명(63.3%)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박사과정’ 21명(21.4%), ‘석사’ 10명(10.2%), ‘학사 및 기타’가 각각 3명(3.1%)과 2명(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Fig. 1). 선행연구(Lee, 2000)와 비교하면, 조사대상에 차이를 보이는 전문학원을 제외한 2년제와 4년제 대학교의 박사졸업자의 비율이 41.3%에서 63.3%로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석사졸업 이하의 비율은 20.0%에서 13.3%로 감소하여, 해당분야 담당교·강사의 최종학력이 지난 10여 년간 상당히 높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최종 학위 세부전공은 ‘의복구성’ 전공자가 응답자 98명 중 78명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해 80%에 달하는 교·강사의 전공이 해당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선행연구(Lee, 2000)에서는 2~4년제 대학교의 해당과목 교·강사 전공이 과목과 일치하는 경우가 43.2%로 비전공자 56.8%에 비해 오히려 그 비율이 낮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조사시점에서의 해당과목 교·강사들의 전문성이 매우 향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공과목이라는 특성상 해당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전공자의 비율은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대상자의 강의경력

조사대상자의 총 강의경력을 학기 단위로 조사한 결과 최소 3학기에서 최대 64학기로 평균 25.52학기였으며, 해당과목(의복원형설계를 포함하는 교과목)의 강의경력은 최소 2학기에서 최대 60학기로 평균 19.58학기였다.

총 강의경력과 해당과목 강의경력을 10학기(5년)의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총 강의경력’은 응답자 92명 중 ‘5~10년’이 36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과목 강의경력’은 ‘5년 이하’가 32명(3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5~10년’ 29명(2.6%), ‘10~15년’ 14명(15.7%), ‘15~20년’ 6명(6.7%) 순이었다. 선행연구(Lee, 2000) 조사대상자 92명의 패턴 관련 교과목 교육경력은 <Table 1>과 같이 본 연구의 해당과목 강의경력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조사대상자의 80%가 의복구성영역 전공자임을 감안하면 패턴

Fig. 1. Level of education.

Fig. 2. Detailed major.

Table 1. Teaching experience of survey respondents

Period of teaching		Research		Advanced research (Lee, 2000)	
		Total teaching experience	Relevant course teaching experience		
		Freq. (%)	Freq. (%)	Freq. (%)	
Less than 5 years		13 (14.1)	32 (36.0)	35 (38.1)	
5-10 years		36 (39.1)	29 (32.6)	24 (26.1)	
10-15 years		15 (16.3)	14 (15.7)	14 (15.2)	
15-20 years		17 (18.5)	6 (6.7)	6 (6.5)	
20-25 years		4 (4.3)	2 (2.2)	8 (8.7)	
More than 25 years		7 (7.6)	6 (6.7)	5 (5.4)	
Total		92 (100.0)	89 (100.0)	92 (100.0)	
Min.	Max.	2	32	1	30
Mean	S.D.	12.84	7.481	9.88	7.798

Shading indicates the highest percentage

관련 교과목 강의경력에 해당과목 강의경력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10여 년 전 선행연구의 조사 대상자에 비해서 강의경력이 전체적으로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강의경력, 학력 및 세부전공 등에서 교·강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대상자의 해외 유학 경험, 유학 종류 및 국가

조사대상자의 해외 유학 경험 유무와 유학의 종류, 국가를 살펴본 결과, 해외 유학을 경험한 교·강사는 전체 100명 중에서 24명이었으며, ‘미국’(9명, 40.9%), ‘프랑스’(6명, 27.3%), ‘이탈리아’(4명, 18.2%), ‘일본’(2명, 9.1%), ‘영국’(1명, 4.5%) 등지에서 유학하였다. 유학의 종류는 학위를 받은 경우(학사 2명, 석사 5명, 박사 1명) 보다는 패션전문스쿨의 과정을 수료(졸업)한 비율이 62.5%로 더 높았다.

4) 조사대상 교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의 종류 및 과목명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평면구성방식의 의복원형설계를 포함하는 교과목’을 강의한 대학교의 종류는 ‘4년제 대학교’ 70개(70%), ‘2~3년제 전문대학’ 27개(27%), ‘사이버대학교’ 3개(3%)였다(Table 2).

해당과목의 개설 교과목명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 ‘의복구성’, ‘의복구성 1’, ‘의복구성 2’ 등이 21개(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패턴메이킹’ 또는 ‘패턴메이킹 1’이 12개(12%)로 많았다. 이 외에도 ‘서

Table 2. Type of University

Type of University	Freq. (%)
Junior College (2-3 years)	27 (27.0)
University (4 years)	70 (70.0)
Cyber University (4 years)	3 (3.0)
Total	100 (100.0)

Table 3. Title of relevant courses

Title of relevant courses	Freq. (%)
Clothing Construction (1, 2)	21 (21.0)
Patternmaking (1)	12 (12.0)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9 (9.0)
Basic Clothing Construction	7 (7.0)
Pattern Design	6 (6.0)
Basic Pattern Design	4 (4.0)
Clothing Construction*	4 (4.0)
Others	37 (37.0)
Total	100 (100.0)

양의복구성’, ‘기초의복구성’, ‘패턴디자인’, ‘기초패턴디자인’, ‘의복구성학*’ 등의 총 37가지의 과목명으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었다. <Table 3>에서의 과목명은 ‘의복구성’, ‘의복구성 1’, ‘의복구성 2’ 등 숫자로 구분한 경우 앞의 과목명이 동일하면 하나의 과목명으로 분류한 것으로, 기타 과목명에는 ‘서양복구성 1’, ‘양재재단’, ‘여성복구성’, ‘의복구성설계’, ‘패션소잉’, ‘패턴제작원리’ 등이 있었다.

5) 해당교과목의 수강 학생 수, 개인별 작업 공간 및 실습 기자재

해당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전체 평균 28.8명으로 최소 13명에서 최대 80명 까지 한 반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종류별로 한 분반 당 수강 인원 수를 비교해보면, <Table 4>와 같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최소 13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수강하며 평균 학생 수가 24.26명이었고, 한 반의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29(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1~25명'(19, 19%), '26~30명'(15, 15%) 순으로 많았다. 반면 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최소 15명에서 최대 80명까지 수강하며 평균 학생 수가 32명으로 한 강의 당 평균 수강 인원이 4년제 대학교에 비해 8명 가까이 더 많았고, 한 반의 학생 수가 '31~40명' 경우가 12(44.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사이버대학교의 경우 개별적인 공간에서 별도로 수업을 듣는 강의시스템의 특성상 분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수강생 평균 인원이 55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Lee(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해당과목 평균 수강생 수가 전문대학 35명, 4년제 대학 29명, 패션전문학원 20명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3명, 4년제 대학의 경우 5명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해당과목은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교수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실습결과에 대한 단계적 피드백을 요하는 과목인 만큼, 과거에 비해 해당과목 한 분반 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과목 수업 시 실습 공간과 실습 기자재에 관하여 '1 매우 부족함'에서 '5 매우 충분함'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적합도를 묻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답자 97명(사이버대 3명 제외)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실습 공간 및 실습 기자재에 대한 적합도는 대학 종류별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고, 오히려 수강 학생 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학생 수별 실습 공간의 적합도는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경우 '충분함'(15, 15.5%)과 '보통'(11, 1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강생이 21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비율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43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실습 공간의 적합도 점수를 5점 Likert 척도의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20명 이하일 경우의 적합도가 3.33으로 '보통'과 '충분함'의 중간 정도였으며, 21명 이상일 경우 적합도 점수는 2.11~2.63까지로 '부족~약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습 기자재에 대한 적합도 또한 학교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수업을 듣는 학생 수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수강생이 20명 이하일 경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명(14.4%)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10명(10.3%) 있었다. 반면 한 반에 수강생이 21명 이상인 모든 경우엔 실습 기자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실습 기자재 역시 실습 공간과 유사하게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평균 점수 3.52로 '보통 이상'의 적합도로 평가받았고, 21명 이상일 경우 2.46~2.67로 모두 '보통 이하'의 적합도를 보였다.

해당교과목은 일련의 의복구성과목에 대한 기초선 수과목으로서, 이 수업에서는 의복원형설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함께 충분한 실습을 통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해당과목에 대한 이해와 흥미 정도는, 차후 이루어질 의복구성 후행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과목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실습 공간과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수업준비의 기본조건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교수자가 제한된 시간에 모든 학

Table 4. Number of students by university types

Number of students		Junior College		University		Cyber University		Total	
Less than 20		3 (11.1)		29 (41.4)		1 (33.3)		33 (33.0)	
21-25		5 (18.5)		19 (27.1)		0 (0.0)		24 (24.0)	
26-30		3 (11.1)		15 (21.4)		0 (0.0)		18 (18.0)	
31-40		12 (44.4)		6 (8.6)		0 (0.0)		18 (18.0)	
More than 40		4 (14.8)		1 (1.4)		2 (66.7)		7 (7.0)	
Total		27 (100.0)		70 (100.0)		3 (100.0)		100 (100.0)	
Min.	Max.	15	80	13	50	20	75	13	80
Mean	S.D.	32.00	13.327	24.26	6.839	55.00	30.414	28.08	11.970

Shading indicates the highest percentage

Table 5. Suitability of space & equipment for practicum

Article	Number of students	1 Very insufficient	2	3 Neutral	4	5 Very sufficient	Total Freq. (%)	Mean
Space	Less than 20	0 (0.0)	5 (5.2)	11 (11.3)	15 (15.5)	1 (1.0)	32 (33.0)	3.33 ^a
	21-25	0 (0.0)	13 (13.4)	7 (7.2)	4 (4.1)	0 (0.0)	24 (24.7)	2.63 ^b
	26-30	0 (0.0)	11 (11.3)	5 (5.2)	1 (1.0)	1 (1.0)	18 (18.6)	2.56 ^b
	31-40	3 (3.1)	12 (12.4)	2 (2.1)	0 (0.0)	1 (1.0)	18 (18.6)	2.11 ^b
	More than 40	1 (1.0)	2 (2.1)	1 (1.0)	1 (1.0)	0 (0.0)	5 (5.2)	2.40 ^b
	Total	4 (4.1)	43 (44.3)	26 (26.8)	21 (21.6)	3 (3.1)	97 (100.0)	2.74
Equipment	Less than 20	0 (0.0)	4 (4.1)	10 (10.3)	14 (14.4)	4 (4.1)	32 (33.0)	3.52 ^a
	21-25	1 (1.0)	13 (13.4)	8 (8.2)	2 (2.1)	0 (0.0)	24 (24.7)	2.46 ^b
	26-30	0 (0.0)	8 (8.2)	8 (8.2)	2 (2.1)	0 (0.0)	18 (18.6)	2.67 ^b
	31-40	2 (2.1)	8 (8.2)	3 (3.1)	4 (4.1)	1 (1.0)	18 (18.6)	2.67 ^b
	More than 40	0 (0.0)	3 (3.1)	1 (1.0)	1 (1.0)	0 (0.0)	5 (5.2)	2.50 ^b
	Total	3 (3.1)	36 (37.1)	30 (30.9)	23 (23.7)	5 (5.2)	97 (100.0)	2.89

F=7.090, $p=0.000$, Duncan test: $a>b$ F=6.580, $p=0.000$, Duncan test: $a>b$

Shading indicates the highest percentage

생과 교감하고 학생들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학생 개인의 학습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한 수업 당 20명 이하의 학생 수가 적합할 것이며, 전체 수강생들에게 충분한 실습 공간과 실습 기자재가 준비 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 하다 하겠다.

2. 의복원형 패턴설계에 대한 사항

1) 수업내용에 포함된 원형과 원형설계 강의방식

수업에 포함된 원형의 종류를 복수응답으로 답하게 한 결과, 본 조사에 해당하는 관련 수업에서는 ‘길원형, 슬리브원형, 스커트원형’을 ‘토루소원형’이나 ‘팬츠원형’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다(Table 6).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가 최근에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는 ‘평면구성방식의 의복원형설계를 포함하는 과목’을 하나 지정하고, 선택한 수업에 대해서 전체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해당과목이 의복구성에 관련된 첫 번째 단계의 수업인지 두 번째 단계인지에 따라 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팬츠 또는 기타 원형의 경우 후행되는 과목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길, 슬리브, 스커트원형이 의복원형설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기초 아이템임은

Table 6. Type of the basic pattern included in course basic pants (multiple responses)

Item	Freq. (%)
Basic bodice	86 (24.9)
Basic torso	47 (13.6)
Basic sleeve	73 (21.1)
Basic skirt	89 (25.7)
Basic pant	49 (14.2)
Others	2 (0.2)
Total	346 (100.0)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간 원형제도를 하는 강의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각자 제도하는 경우’가 90명(90.0%)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선생님이 제도한 원형을 그대로 베껴 사용(3명, 3%)’하거나, ‘선생님의 시범 없이 교재를 보고 학생이 각자 제도(1명, 1%)’, ‘기타’(6명, 6%) 등의 방법은 드물게 사용되고 있었다.

2) 원형제도 시 사용하는 치수와 문제 정도

수업시간에 의복 원형을 제도할 때 사용하는 치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개인치수를 측정하여’ 62명

(62.0%), ‘기성복치수규격을 제시하여’ 28명(28.0%), ‘교·강사개인경험치수를 적용하여’ 5명(5.0%), ‘인대치수를 측정하여’ 3명(3.0%)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Fig. 3). 기타로는 두 가지 방법의 병용이 있었는데, ‘학생개인치수와 기성복치수규격을 병용’하는 경우와 ‘학생개인치수와 인대치수를 병용’하는 경우의 두 경우가 있었다. Lee(2000)의 연구결과에서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67.0%, ‘기성복규격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14.9%, ‘교수개인경험치수’와 ‘학생개인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8.5%와 9.6%인 것과 비교하면,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는 비율과 교수개인치수 및 학생인대치수를 사용하는 비율이 모두 과거에 비해 다소 줄고, 대신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는 비율이 14.9%에서 28.0%로 10여 년 전에 비해 13%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선택한 치수를 사용하여 수업을 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문항을 ‘1 매우 그렇다’에서 ‘5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물었다. 사용하는 치수에 따른 평균점은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2.73,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는 경우 3.45, ‘교

수개인경험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2.80, ‘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3.25로, 기성복과 인대치수에서는 3점 이상으로 ‘보통’과 ‘문제없다’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학생개인치수와 교수경험치수는 3점 이하로 ‘보통’과 ‘문제가 있다’의 사이로 분석되었다(Table 7).

앞서 <Fig. 3>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형제도 시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2.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의 교·강사가 선택한 수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와 ‘문제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이는 다수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수가 선택한 방법의 장점과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원형설계 시 사용하는 치수에 따른 수업특성 및 문제점

(1)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할 경우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여 원형설계수업을 진행할 경우의 문제점’을 복수응답으로 묻은 결과, ‘학생개인치수측정의 부정확성’(49명, 33.8%), ‘학생들의 다양한 체형’(38명, 26.2%), ‘가봉 시의 기술과 시간’(24명, 16.6%), ‘학생들이 제도 공식에 개인치수대입을 어려워함’(18명, 12.4%), ‘수업시간의 부족’(13명, 9.0%)의 순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점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학생개인치수 측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치수측정자’는 62명의 응답자 가운데, ‘선생님이 측정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끼리 측정’한다고 답한 경우가 55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수가 직접 측정’하거나 ‘선생님 설명 후 학생들이 측정하고 교수가 (부분

Fig. 3. Type of measurements for basic pattern drafting.

Table 7. Degree of teaching problem by type of measurements

Type of measurements	1	2	3	4	5	Total Freq. (%)	Mean (S.D.)
	Very problematic	Neutral		Very unproblematic			
Individual student's sizes	4 (6.6)	25 (41.0)	19 (31.1)	10 (13.4)	3 (4.9)	61 (100.0)	2.73 (0.987)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0 (0.0)	3 (10.7)	12 (42.9)	11 (39.3)	2 (7.1)	28 (100.0)	3.45 (0.783)
Professor's experimental sizes	1 (20.0)	0 (0.0)	3 (60.0)	1 (20.0)	0 (0.0)	5 (100.0)	2.80 (1.095)
Dress form sizes	0 (0.0)	0 (0.0)	1 (33.3)	2 (66.7)	0 (0.0)	3 (100.0)	3.25 (0.957)
Total	5 (5.2)	28 (28.9)	35 (36.1)	24 (24.7)	5 (5.2)	97 (100.0)	2.95 (0.956)

Shading indicates the highest percentage

적으로) 재측정'하는 경우는 각각 전체 62명 중 1명(1.6%)과 6명(9.7%)에 불과하였다(Fig. 4). '학생들의 개인치수 측정항목 수'는 '6~10항목'을 측정하는 경우가 31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5개 이하' 12명(19.4%), '11~15개' 11명(17.7%) 그리고 '16~20개'와 '21개 이상'이 각각 5명(8.1%)과 3명(4.8%)으로 나타났다(Fig. 5).

해당수업에서 '인체측정의 문제 정도'를 '1 매우 그렇다'에서 '5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묻은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명(56.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18명(30.0%), '매우 그렇다' 3명(5.0%)이 있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60명 중 5명(8.3%)에 불과했는데, 정확한 인체 측정치는 잘 맞는 의복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써 원형설계 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적합한 인체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개인치수측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복

수응답으로 묻은 질문에 대해서는, '기준점 찾기'와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기' 등 측정의 문제(104명, 62.0%) 뿐 아니라 '피측정자의 착장상태'와 '자세 불량' 등 피측정자의 문제(61명, 46.3%) 모두에서 기인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측정의 문제가 62.0%로 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측정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이 스스로를 직접 측정하는데서 오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90%에 가까운 수업에서 학생들끼리 스스로 신체치수를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명의 교수자가 제한된 수업시간에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체치수를 일일이 측정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업시간에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여 의복원형을 설계할 경우 다음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개인치수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학생들의 다양한 체격과 체형을 최대한 반영하고, 가봉 시의 기술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새 좋은 교육용 원형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제도 공식에 개인치수를 쉽게 대입할 수 있는 쉬운 원형설계법이 필요하다.

(2)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할 경우

해당수업에서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28명의 '기성복치수 적용방법'은 <Fig. 6>와 같다. '모두 동일하게 기준사이즈로 제도'하는 경우가 19명(67.9%)로 가장 많았고, '학생 자신의 기성복사이즈로 제도'하는 경우 6명(21.4%) 그리고 '기본사이즈 제도 후 사이즈 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3명(10.7%)이었다.

각각의 경우에서 '어떠한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지 서술형으로 질문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기준사이즈

Fig. 4. Subject of body measurement.

Fig. 5. Number of measurement article.

Fig. 6. Application method of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로 제도하는 경우의 기준사이즈는 거의 대부분이 '55 사이즈'(13명, 72.2%)를 사용하고 있었고, '85 사이즈(85-160)'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11.1%) 그리고 '44 사이즈', 'size 8', '교제에서 제시하는 표준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1명(5.6%) 있었다. 학생 자신의 기성복사이즈로 제도하는 경우에는 '44-55', '44-55-66' 또는 '44-55-66-77' 등의 2~4개 호칭으로 제도를 하였으며, 기준사이즈로 제도한 후 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3개의 모든 케이스에서 55 사이즈로 먼저 제도를 한 후, 44-66-77-88로 그레이딩 하여 5개의 호칭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해당수업에서 '참고하는 치수규격'을 복수응답으로 묻는 질문에 '업체 실무자료'와 '관련 서적자료', '사이즈코리아 측정자료'가 각각 12명(36.4%)과 11명(33.3%), 9명(27.3%)으로 비교적 큰 차이 없는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고, 응답자 28명 중 5명은 수업에 사용하는 치수규격 제시를 위하여 실무자료, 서적자료, 사이즈코리아 측정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참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기준호칭의 기본부위 신체치수'는 각 항목의 평균 치수에서 젓가슴둘레 84.8cm, 허리둘레 65.5cm, 엉덩이둘레 91.2cm, 등길이 38.5cm 그리고 팔길이가 57.9cm이었고, 각 항목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치수는 젓가슴둘레 84cm(39.1%), 허리둘레 66cm(59.1%), 엉덩이둘레 92cm(45.5%), 등길이 38;39cm(각 45.5%), 팔길이 56;58;60cm(각 30.0%)이었다(Table 8). *KS K 0051; Sizing systems for female adult's garments*(2009)에 따르면 의류제품의

치수규격은 100cm를 기준으로 젓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3cm 등간격으로 그리고 키는 5cm 등간격으로 변화하며 호칭에 적용하나, 해당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성복 기준부위 치수는 KS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젓가슴둘레 치수가 81~90cm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엉덩이둘레 치수는 90~94cm까지 범위가 비교적 좁게 사용되고 있었고, 허리둘레 치수범위는 60~67cm로 중간 정도였으나 66cm를 사용하는 경우가 60%에 가까운 정도로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등길이는 38cm와 39cm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팔길이는 56, 58, 60cm가 각각 같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여 원형설계 수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치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8명 중 14명(50%)은 '적용한다', 나머지 50%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생개인치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부위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묻은 결과 '팔길이'(7명, 20.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엉덩이둘레', '등길이', '스커트길이'가 각 4명(11.8%)으로 개인치수 적용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각 3명, 8.8%), '앞폭', '뒤폭', '엉덩이길이'(각 2명, 5.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성복치수를 적용하는 방법과 학생개인치수 부분 적용 여부에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학적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생 자신의 기성복 사이즈로 제도하는 경우'에 개인치수 부분 적용비

Table 8. Body measurements used as standard size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Back length		Sleeve length	
cm	Freq. (%)	cm	Freq. (%)	cm	Freq. (%)	cm	Freq. (%)	cm	Freq. (%)
81	1 (4.3)	60	1 (4.5)						
82	1 (4.3)	63	1 (4.5)						
83	1 (4.3)	64	2 (9.1)	90	9 (40.9)	37	1 (4.5)	55	1 (5.0)
83	1 (4.3)	65	2 (9.1)	91	2 (9.1)	38	10 (45.5)	56	6 (30.0)
84	9 (39.1)	66	13 (59.1)	92	10 (45.5)	39	10 (45.5)	58	6 (30.0)
85	5 (21.7)	67	3 (13.6)	94	1 (4.5)	40	1 (4.5)	59	1 (5.0)
86	2 (8.7)							60	6 (30.0)
88	1 (4.3)								
90	2 (8.7)								
Total	23 (100.0)	Total	22 (100.0)	Total	22 (100.0)	Total	22 (100.0)	Total	20 (100.0)
Mean	84.8	Mean	65.5	Mean	91.2	Mean	38.5	Mean	57.9

Shading indicates the highest percentage and the measurement unit (cm)

율이 더 높았고(적용함, 83.3%), ‘기본사이즈 제도 후 사이즈 그레이딩을 하는 경우’(적용함, 33.3%)나 ‘모두 동일하게 기준사이즈로 제도하는 경우’(적용함, 42.1%)에는 학생개인치수를 적용하지 않고 치수규격 그대로의 치수만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여 수업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인지 서술형으로 직접 기입하게 한 결과 기성복치수규격 적용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기준호칭 하나로만 수업을 진행할 경우 “기준호칭과 신체치수가 많이 차이 나는 학생들의 경우 착장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4개 정도의 다양한 호칭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원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업시간에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여 의복원형을 설계할 경우 다음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달할 지식의 내용 및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제작원형착장 여부와 착장시킬 대상(학생 개개인, 대표 학생, 인대 등)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직접 착장할 경우 교육대상의 신체특성과 수업에 사용하는 기성복치수규격의 적합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직접 착장할 경우 KS규격에 부합하는 기성복의 사이징시스템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도, 착장검사에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대표부위 신체특성을 반영하여 맞춤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교수개인경험치수 및 인대치수를 사용할 경우
‘교수개인경험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업시간에 사

용하는 기본부위 평균치는(해당자 5명 중 4명 응답) 젓 가슴둘레 82.3cm, 허리둘레 67.8cm, 엉덩이둘레 92.0cm, 등길이 40.0cm, 팔길이 59.5cm이었고, ‘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업에 사용하는 인대의 종류와 호수는 3명의 응답자 모두 ‘돼지표’ 바디 ‘8호’라고 답하였으며, 해당상표 8호의 평균 인대치수(인대마다 약간씩의 차이 있음)는 젓가슴둘레 87.0cm, 허리둘레 66.0cm, 엉덩이둘레(허리앞점 아래 20cm) 92.0cm, 등길이 39.0cm이었다. ‘사용 인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3명 중 1명이 ‘만족한다’, 2명이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고, 인대를 사용하여 원형설계 수업을 진행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디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가봉이나 패턴 수정이 필요 없어 이에 대한 교육이 적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문응답 교·강사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사이즈 평균 치수와 2004 및 2010 Size Korea 직접측정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9>와 같은데, 엉덩이둘레 치수의 편차가 1.0cm로 가장 작았고 팔길이의 편차가 5.8cm로 가장 컸다. 젓가슴둘레치수는 인대가 87.0cm로 가장 크고 교수개인경험치수와 Size Korea 2004가 82.3cm로 가장 작았으며, 허리둘레는 기성복치수규격이 65.5cm로 가장 작고 Size Korea 2010 평균 치수가 69.7cm로 가장 컸다. 엉덩이둘레 치수는 각 치수 간 평균치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 기성복치수규격이 91.2cm로 가장 작고 Size Korea 2010 치수가 92.2cm로 가장 컸다. 등길이는 38.1~40.0cm로 교수개인경험치수가 가장 길게 나타났고, 팔길이는 Size Korea 2004의 53.7cm에 비해 교수개인경험치수가 59.5cm로

Table 9. Mean value of each body measurement

(Unit: cm)

Type of measurement	Bust circum.	Waist circum.	Hip circum.	Drop 1 ¹⁾	Drop 2 ²⁾	Back length	Sleeve length
Standard size of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84.8	<u>65.5</u>	<u>91.2</u>	6.4	<u>25.7</u>	38.5	57.9
Professor's experiential sizes	<u>82.3</u>	67.8	92.0	<u>9.8</u>	24.3	<u>40.0</u>	<u>59.5</u>
Dress form sizes	<u>87.0</u>	66.0	91.5	<u>4.5</u>	25.5	39.0	-
2004 Size Korea ³⁾	<u>82.3</u>	67.3	91.4	9.1	24.1	<u>38.1</u>	<u>53.7</u>
2010 Size Korea ⁴⁾	83.3	<u>69.7</u>	<u>92.2</u>	8.8	<u>22.4</u>	39.0	54.4
Difference between max. and min. value	4.7	4.2	1.0	5.3	3.3	1.9	5.8

¹⁾ difference between hip and bust circumference²⁾ difference between hip and waist circumference³⁾ age of 18-24, female, n= 975, statistics with Size Korea 2004 2-D raw data⁴⁾ age of 18-24, female, n= 757, statistics with Size Korea 2010 2-D raw data
 Box indicates the maximum value, Underline indicates the minimum value

5cm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 소매길이는 팔길이에 어느 정도의 여유분이 포함되므로 차이 비교에 있어 먼저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드롭과 하드롭을 비교하면 교수개인경험치수와 Size Korea 2004가 유사하게 ‘엉덩이치수가 크고 젓가슴둘레 치수가 가장 작아 드롭치가 높게 나온 체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인대치수는 ‘엉덩이둘레는 작고 젓가슴둘레가 가장 커서 드롭치가 비교적 작은 체형’이었다. 하드롭은 기성복치수규격과 인대치수가 25cm 이상으로 ‘허리 굴곡이 더 있는 체형’이었고, 교수개인경험치수와 Size Korea 2004는 중간정도였으며 Size Korea 2010의 하드롭치는 22.4cm로 ‘허리가 비교적 뭉뚱한 체형’이었다. Size Korea 2004에서 정의된 허리위치(*Anthropometric standards glossary*, 2003)와 Size Korea 2010에서 정의된 허리위치(*The 6th Size Korea two-dimensional body measurement project-final report*, 2010)에 차이가 있어, 허리둘레 치수는 다소 증가하고 하드롭이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측정방법의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의복원형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수업에서 제작된 원형을 착장시키는 교육내용이 포함된다면, 착장대상을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치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의복원형제작 및 가봉에 대한 사항

1) 원형의(衣) 가봉 여부

‘원형제도 후 원형의(衣) 광목가봉 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6명(66.0%)은 ‘가봉을 한다’, 34명(34.0%)은 ‘가봉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Table 10). 교차분석결과 ‘원형제도 시 사용하는 치수’와 ‘가봉 여부’에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으나,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교수경험치수와 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봉을 하는 비율이 각각 74.2%와 100.0%로 70%

이상의 비율을 나타냈고,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봉을 하지 않는 경우가 53.6%로 오히려 더 많았다.

가봉을 하지 않는 34명의 응답자가 ‘가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원형설계 시 사용하는 치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형가봉 없이 직접 실물을 제작하면서 가봉하므로’(11명, 68.8%)와 ‘수업시간이 부족해서’(5명, 31.3%)라는 이유로 가봉을 하지 않았고,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기본치수를 사용하여 모두 동일한 원형을 제작하므로’(5명, 33.3%)와 ‘기타’(6명, 40%) 이유로 광목가봉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기타의 이유로는 ‘수업시간 부족과 동시에 동일한 치수로 제작하므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한 명의 응답자는 ‘사이버대의 특성상 광목가봉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원형을 제작하여 인체(인대)에 착장시키고, 착장상태의 의복을 살피는 기술은 디자이너가 되든 모델리스타가 되든 의류학도로서 필히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다분히 감각적이면서도 기술적인데,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심미성, 활동성, 기능성, 안락함 등)을 개선하여 더 좋은 의복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원형설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착장상태에서의 의복을 보는 눈’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원형설계 수업에 있어 단순히 패턴제도에만 그치지 않고, 원형의(衣) 광목제작 및 가봉을 통한 착장상태 평가와 평가결과를 패턴에 적용하여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선생님과 함께 익히는 과정이 수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물론 관련 학습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원형의(衣) 광목제작

가봉을 하는 66명의 응답자가 광목 원형의(衣)를 제작할 때 ‘패턴을 옷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패턴의

Table 10. Muslin fitting by type of measurements

Muslin fitting	Individual student's sizes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Professor's experiential sizes	Dress form sizes	Others	Total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Yes	46 (74.2)	13 (46.4)	3 (60.0)	3 (100.0)	1 (50.0)	66 (66.0)
No	16 (25.8)	15 (53.6)	2 (40.0)	0 (0.0)	1 (50.0)	34 (34.0)
Total	62 (100.0)	28 (100.0)	5 (100.0)	3 (100.0)	2 (100.0)	100 (100.0)

완성선을 잘라내어 초크나 펜을 사용하여 외곽선을 표시'하는 경우가 38명(57.6%)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패턴의 완성선을 자르지 않고 먹지와 롤렛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25명(37.9%)이었으며, '기타'(3명, 4.5%)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하고 학생 개인이 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다(Fig. 7). 원형의(衣)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법'은 '본봉재봉틀만 사용'하는 경우가 37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손으로 시침질'을 하는 경우 19명(28.8%), '오버록과 본봉재봉틀을 사용'하는 경우 4명(6.1%)이었으며, 기타 6명(9.1%)은 손바느질과 본봉재봉틀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Fig. 8).

3) 원형의(衣) 가봉

원형의(衣) 가봉대상은 응답자 66명 중 77.3%인 51명이 '학생 개인의 신체에 맞추어' 한다고 하였고, 8명(12.1%)은 '인대에 맞추어' 그리고 5명(7.6%)은 '선별한 표준체형 학생의 신체에 맞추어' 가봉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로는 '여학생을 자신의 신체에, 남학생

은 인대에' 가봉한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11). '원형제도에 사용하는 치수'에 따라 '가봉대상'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45명, 97.8%)이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가봉을 하였고, 인대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3명 전원이 '인대'에 가봉을 하였으며,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 개인이나 인대'(각 5명, 38.5%) 또는 '대표모델 학생'(15.4%) 등 다양한 대상에 착장하여 가봉을 하고 있었다. 교차분석결과 사용하는 치수와 가봉대상에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자의 수가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빈도 5 이하의 셀이 상당수 있는 관계로 의미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형의(衣) 가봉방식은 '선생님이 원형가봉방법을 설명해 준 후 학생들이 직접 가봉하고 차후에 선생님이 점검하는 방식'(36명, 54.5%)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직접 가봉해 주는 방식'(24명, 36.4%)이 많이 사용되었다. '선생님 설명 후 학생이 직접 가봉하고 선생님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4명(6.1%)

Fig. 7. Marking method.

Fig. 8. Sewing method.

Table 11. Object of muslin fitting by type of measurements

Type of object	Individual student's sizes	Ready-made clothes sizing system	Professor's experiential sizes	Dress form sizes	Others	Total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Freq. (%)
Individual student	45 (97.8)	5 (38.5)	1 (33.3)	0 (0.0)	0 (0.0)	51 (77.3)
Standard body type student model	1 (2.2)	2 (15.4)	2 (66.7)	0 (0.0)	0 (0.0)	5 (7.6)
Dress form	0 (0.0)	5 (38.5)	0 (0.0)	3 (100.0)	0 (0.0)	8 (12.1)
Others	0 (0.0)	1 (7.7)	0 (0.0)	0 (0.0)	1 (100.0)	2 (3.0)
Total	46 (100.0)	13 (100.0)	3 (100.0)	3 (100.0)	1 (100.0)	66 (100.0)

■ Shading indicates the highest percentage

Fig. 9. Muslin fitting method.

을 혼용한다고 답한 기타의 경우가 2명(3.0%) 있었다 (Fig. 9).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직접 가봉해보는 실습과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봉을 해주는 확인 작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수업시간의 부족과 많은 인원 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생님이 혼자 직접 가봉을 하거나, 학생 스스로 가봉하고 확인 받지 못하는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의복원형을 인체(인대)에 착장시켜보는 것은 '의복' 및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원형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다양한 변형패턴의 맞음새와 심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가 된다. 이러한 원형의(衣) 가봉을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해당수업 교육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교수자의 깊은 생각과 신중한 선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원형의(衣) 가봉 후 패턴수정

원형의(衣) 가봉 후 그 결과에 따른 패턴수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이 수정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이 직접 수정하고 선생님이 수정결과를 점검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9명(74.2%)으로 전체의 3/4 가량을 차지하였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이 직접 수정하고 마친다' 11명(16.7%), '선생님이 직접 수정한다' 4명(6.1%)으로 조사되었다(Fig. 10). 앞서 살펴본 광목가봉의 방식과 동일하게, 광목가봉 후 패턴수정의 과정도 '교수자의 설명', '학생의 실습' 그리고 '선생님의 점검'에 따른 실습결과와 확인과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해주는 일련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따라서 패턴을 처음 접하는 학생 스스로가 직접 수정하고 선생

Fig. 10. Pattern alteration method after muslin fitting.

님이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수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와 교수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00명의 교·강사를 대상으로 국내 대학 의류패션계열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복원형교육(평면구성)의 내용, 방식, 강의 여건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최종 학위는 '박사졸업'(62명, 63.3%) 이, 최종 학위 세부전공은 '의복구성전공'(78명, 79.6%)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평균 강의경력은 '총 강의경력' 25.5학기, '해당과목 강의경력' 19.6학기로 선행연구(Lee, 2000)의 조사대상자에 비해 학력, 전공 부합도, 강의경력 등에서 모두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4년제 대학교 70개, 2~3년제 전문대학 27개, 사이버대학교 3개였으며, 의복구성, 패턴메이킹, 서양의복구성, 기초 의복구성, 패턴디자인 등 총 37개 '과목명'으로 개설되고 있었다. 해당과목 평균 '수강생 수'는 4년제 24.3명, 2~3년제 32.0명이었는데,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실습 공간과 기자재 적합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20명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수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형제도 시 사용하는 치수'는 학생개인치수 62명(62%), 기성복치수규격 28명(28%), 교수개인경험치수 5명(5%), 인대치수 3명(3%), 2가지 치수병용(2명, 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선행연구(Lee, 2000)와

비교해 기성복치수규격 사용의 비율이 13% 가량 증가하였다. 각 치수를 사용하여 수업할 경우 문제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한 결과, 기성복치수규격(3.45)과 인대치수(3.25) 사용의 경우 3점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교수개인경험치수(2.80)와 학생개인치수(2.73) 사용의 경우 3점 이하로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학생개인치수’를 사용하여 원형설계 수업을 진행할 경우 문제점은 ‘인체측정의 부정확성’(49명, 33.8%), ‘학생들의 다양한 체형’(38명, 26.2%), ‘가봉 시의 기술과 시간’(24명, 16.6%), ‘학생들이 제도 공식에 개인치수대입을 어려워함’(18명, 12.4%), ‘수업시간의 부족’(13명, 9.0%) 순으로 지적되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88.7%)인 현 상황에서 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학생개인의 다양한 체격과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맞춤새 좋고 설계가 쉬운 원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할 경우 19명(70%)이 기준 사이즈 하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6명(21%)은 학생 자신의 기성복사이즈로, 3명(10.7%)은 기준사이즈 제도 후 그레이딩을 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기준사이즈’를 ‘55(85-160)’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86%)이었는데, 기성복치수규격 사용자의 50%는 팔길이, 등길이, 스커트길이, 엉덩이둘레 등에서 부분적으로 개인치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할 경우 전달할 지식의 내용과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착장시킬 대상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치수규격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직접 착장시킬 경우 맞춤새를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형제도 후 광목가봉을 하는 비율은 100명 중 66명이었고, 34명의 응답자는 ‘수업시간이 부족해서’, ‘원형가봉 없이 실물 제작하면서 가봉하므로’, ‘기본치수로만 수업하므로’ 등의 이유로 가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봉을 하는 경우 원형의 마름질과 제작에서 ‘패턴의 완성성을 잘라 초크나 펜으로 표시하는 경우’(38명, 57.6%)와 ‘본봉재봉틀만 사용하는 경우’(37명, 56.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봉의 대상은 ‘원형설계 시 사용하는 치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학생개인치수사용 시에는 학생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인대치수사용 시에는 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기성복치수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

개인이나 인대에 가봉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학생 개인을 가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51명(77.3%)으로 가장 많았다. 원형의(衣)의 착장검사는 ‘의복’ 및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 이해와, 원형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다양한 패턴의 맞춤새와 심미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서히 관련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학생의 실습과 실습결과에 대한 선생님의 확인(피드백)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교수자 차원에서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의류패션계열학과 의복원형설계 교육에 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의 현황 고찰을 통하여 강의방식별 장단점과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다년간의 강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연륜 높은 선생님들의 강의 노하우 및 타교수자들의 폭넓고 다양한 강의방식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와 해당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nthropometric standards glossary*. (2003). Seoul: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KS K 0051; Sizing systems for female adult's garments*. (2009). Seoul: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Lee, M. O. (2000). *A Study on fashion education institutions' programs on apparel prototypes in Korea-Focused on basic bodice patternma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ist of clothing, apparel, fashion and textiles related departments in Korean universities. (2010). *Educational Statistics & Information*. Retrieved May 6, 2010, from <http://std.kedi.re.kr/index.jsp>
- Research division of apparel science and technology. (2011).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Retrieved August 24, 2011, from http://www.ksct.or.kr/sub/sub3_01_3.php
- The 6th Size Korea two-dimensional body measurement project-final report*. (2010). Seoul: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